
보 도 자 료

- 제 공 일 : 2007. 2. 14.
 - 제공부서 :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
 - 문 의 : 강종훈, 박영철, 김석만
 - 연 락 처 : 739-7086, 735-0792
-

제 목 : 남해안지방 한라봉 재배실태 조사결과

= 고품질한라봉 생산 및 출하조절(품질기준 준수 등)로 제주산과 품질차별화 노력 =

-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2월 7일에서 8일까지 행정(도), 독농가와 함께 전남 나주와 고흥지역, 경남 거제 지역 등 남해안지방 한라봉 재배실태(재배기술, 품질, 출하 실태 등)를 조사하였다.
- 이번 조사결과 남해안지방 한라봉은 재배면적 46.7ha에서 460여 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, 이는 2004년 21.5ha에서 71톤이 생산된 것과 비교하면 재배면적으로는 약 2배, 생산량으로는 약 6배정도 증가한 것이다.
- 특히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한라봉 품질이었는데, 제주지역 보다 시설조건이 좋지 않고 재배기술이 다소 떨어졌지만 철저한 적과와 비과과 선별기를 이용하여 13°Bx 이상의 과실만 선별 출하와 공동출하, 공동정산을 함으로써 당도가 13~16도, 산 함량은 0.9~1.2% 정도로 품질이 비교적 우수하였다.

- 또한 제주지방에서는 감귤 고집에 의한 한라봉을 생산하는데 비하여 남해안지방에서는 묘목육성수로 재배하고 있으며, 성숙기(11~2월) 보조난방(최저온도 2~8℃) 보온관리에 의해 당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.
- 또한 대부분의 농가들은 완숙과를 골라 수확하고 있었으며, 당도 13~14도 이상, 산함량 1.0% 이하를 기준(품질기준 준수)으로 정하여 대형백화점 및 인근대형도매시장 등에 출하하고 있었는데, 특히 품질 높은 한라봉만을 출하하겠다는 농가들의 높은 의식수준이 제주 생산농가들과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었다.
- 이번 조사결과로 볼 때, 남해안 지역 한라봉은 시설비와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어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지만 자치단체에서 시설비 등을 보조할 경우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다.
- 현재 재배면적이 제주지역의 4.1% 수준으로 적어 제주산 한라봉에 큰 영향은 없지만, 금후 자체브랜드 개발로 제주산 한라봉과 품질차별화를 시킬 경우 가격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.

-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산함량이 높은 고점 육성수를 하루빨리 묘목 육성수(M16A)로 대체하고, 비파괴선과기를 도입 철저한 품질관리 출하시스템 정착 및 생산이력제를 통한 명품브랜드 육성에 의한 한라봉 출하가 시급히 필요하며, 농가들도 한라봉 도입초기의 마음가짐과 관리를 세밀히 하여, 한라봉을 제주의 대표브랜드로 지속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다.

남해안지방 한라봉 재배실태 조사결과

1. 조사개요

가. 기 간 : 2. 7~8(2일간)

나. 출 장 자 : 6명(기술원 3, 행정(도) 1, 독농가 2)

다. 주요방문지 : 전남(나주, 고흥지역), 경남(거제지역)

2. 남해안지방 한라봉 재배실태 조사결과

가. 기상조건

○ 착과기간(6~2월) 기상(2004~2005) (단위 : °C, 시간)

구 분		평균기온(°C)	일조시간(시간)
제 주(서귀포)		17.7	1,558
남부 지역	전남(고흥)	14.0	1,520
	경남(거제)	14.8	1,711

- 2004~2005년 착과기간(6~2월) 동안 평균기온은 제주지역(서귀포) 보다 2.9(거제)~3.7°C(고흥) 낮았고, 일조시간은 고흥이 38시간 적었고, 거제는 153시간 많았음

나. 남해안지방 한라봉 재배현황(2006년 추정)

구 분		면적(ha)	생산량(톤)	농가수(호)	비 고
제 주		1,128.2	18,280	2,733	
남해안 지방	전 남	36.7	400	164	나주 12.0, 고흥 8.2 보성 3.2, 완도 3.0 등
	경 남	10.0	60	41	거제 10.0

다. 주요 재배기술 실태

1) 시설 및 재식형태

○ 채소 및 과채류 재배시설을 활용한 작목전환 농가가 대부분임

○ 하우스 형태는 농수산식 하우스를 개량하여 높이가 낮음

※ 하우스시설비 : 3.3m²당 8~10만원 소요

- 재식거리는 2m×2m 또는 2m×1m 정도로 대부분 밀식되었고,
높은이랑 재배, 검은색시트(weed stop) 피복 및 점적관수 시설됨
- 일부 고접농가도 있으나 대부분 묘목육성수로 재배
- 난방기 및 축열식 물주머니 활용 시설내 보온
 - 생육초기(3~5월)와 성숙기(11~2월) 최저온도를 2~8℃ 유지



< 밀식재배로 Weed stop 피복 및 축열식 물주머니 설치 모습 >

2) 전정 등 기본재배관리

- 천정이 낮은 하우스에 맞게 나무크기를 제한(강전정, 순숙기)
- 밀식재배로 나무가 수직으로 자라는 편임
- 적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되어 적과를 많이 하고 있음
- 과실매달기는 가지단위로 실시하는 농가도 있음
- ☞ 남해안지방 한라봉 재배기술 수준은 제주지역 보다 낮은 편이나,
일부 농가에서는 최신정보를 받아들여 기술수준을 높이고 있음

3) 과신품질

- 당도·산함량 : 당도 13~16°Bx, 산함량 0.9~1.2% 정도
- 거제지역은 60% 이상이 성숙기 당도 13°Bx이상 산함량 1.0% 이하
 - ※ 제주보다 당도는 1°Bx 정도 높고 산함량은 0.3%정도 낮은 편임
- 과육과 과피가 벌어지는 부피과 발생이 많은 편임
- 과실크기 : 농가별로 기술수준과 관리수준에 따라 편차가 큼

< 남해안지방이 한라봉 품질향상에 유리한 이유 >

- ▶ 일부 고점농가도 있으나 대부분 묘목육성수로 재배
- ▶ 성숙기(11~2월) 고온관리 : 당도 증가 및 산함량 감소에 유리
 - ※ 고온관리로 가을순 발생이 많고 과실껍질이 뜨는 현상이 나타남



< 야간 보조가온 온풍기(좌)와 부피과 모습(우) >

라. 수확 및 유통관리

- 나주지역은 한라봉연합사업단에서 당도 14°Bx 이상, 산함량 1.0% 이하의 과실을 선별하여 직거래를 하고 있음
 - 거제지역에서는 한라봉작목반에서 비파괴선별기를 이용하여 당도 13°Bx 이상, 산함량 1.0% 이하의 한라봉을 선별 출하
 - 공동출하 공동정산 정착 : 18,000~25,000원/3kg 내외('06년산)
 - 「한라봉」 대신 다른 상표명으로 바꿔 제주와 차별화 시킬 예정
- ⇒ 품질기준 준수 등 출하조절이 잘 되고 있었음

마. 재배농가 반응

- 한라봉 재배는 낙엽과수(사과, 배, 포도 등) 보다 재배가 용이하여 선호하는 편이었음
- 일부 농가는 제주지역에서 일부 저급품 한라봉 출하로 남해안 지역 한라봉 가격도 하락되고 있다면서, 제주지역에서 품질 높은 한라봉만 선별 출하할 것을 당부하기도 함
- 금후 수입개방화가 되어도 제주지역보다 기상환경과 유통경비 등을 고려할 때, 남해안 지역에서 한라봉 재배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음

4. 재배전망 및 제주한라봉 산업에 미치는 영향

- 남해안지방은 일조시간이 많아 품질향상조건은 제주보다 유리하고 재배기술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, 재배농가가 적어 저급품출하 통제가 가능하여 한라봉 품질은 꾸준히 향상될 것임
- 한라봉은 타작목보다 재배노력이 적게 소요되어 농가가 선호하고 있었고, 행정에서도 한라봉 재배를 확대시키려고 독려하고 있으나 시설비 과다로 급속확대 가능성은 낮은 실정임
 - ※ 자치단체가 보조할 경우는 급속히 증가될 가능성도 있음
- 현재 재배면적이 적어 제주산 한라봉에 큰 영향은 없지만, 제주산 한라봉과 품질차별화를 위해 자체브랜드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후 영향이 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5. 제주지역 한라봉의 대응방향

- 고접육성수는 묘목육성수(M16A)로 조속 대체
- 비파괴선과기 도입으로 품질에 따른 출하시스템 정착
 - ※ 생산이력제 도입을 통한 명품브랜드 개발 및 집중 육성
- 농가의식전환
 - 재배초기의 마음가짐 필요
 - 기본관리 철저
 - 비상품과 출하 금지 등